社 說

공천 신청자들의 반발

한나라당 공천내정자가 결정되자 공천신청했던 인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유는 인지도와 지지도가 낮은 후보가 내정되었다는 점이다. 공천이 내정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큰 반응이 없다가 자신이 안되니까 잘못되었다는 식이다.

정당 공천이라는 것은 결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하는 상향식 공천, 중앙당 차원에서 결정하는 하향식 공천이 있다.

상향식 공천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서구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방법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상향식 공천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보스정치가 만연해 왔던 우리나라에서는 상향식 공천을 한다는 것은 아직 한계가 있다. 민주주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상향식 공천을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정에서 민주주의가 아직은 성숙하지 않았다는 점을 볼수 있다.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포천시 연천군 선거구 입후보 예정자들이 성숙되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4.9국회의원 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포천시연천군 선거구에서 출마한 한나라당 예비후보들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유포했다.

한나라당 공천 내정자가 발표되기 이전부터 갑작스럽게 우리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나돌고 있다. 그리고 내정자가 결정되었는데도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마음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다. 공천을 받지 못한 예비후보들이 그동안 쏟아부었던 정성과 열정은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향심 또한 누구보다 앞선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없는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안된다.

물론 공천 내정자가 곧 후보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당공천은 공천심사위원회가 내정자들 결정하고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내정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공천심사위원회가 재심을 하게 되고 만장일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표결처리하게 된다.

공천을 신청했던 인사들은 지역민을 대변하고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그동안 지역민들의 수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해 왔다. 일련의 과정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지역을 위해 펼쳐보겠다는 포부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한 자신의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보다는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섰다고 본다. 그렇다면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경쟁에서 이긴 사람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책을 알려주고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민들은 누가 공천을 받고 누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것보다 누가 과연 지역을 위해 얼마만큼의 일을 할 것인가에 관심이 높다. 낙후된 우리지역을 위한 길이 어떤 것인지 예비후보들은 공천에 앞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다른 예비후보보다 절대적으로 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공천을 못받으면 무소속이라도 출마해 주민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누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든지 당선자를 중심으로 우리지역이 낙후된 원인을 찾고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2008 새해설계 ⑤ 포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정종근

"포천시 조직개편은 행정전문가가 추진해야"

농촌지역이나 도농복합지역은 소선거구제 실시 필요

"최근 포천시가 조직개편작업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공석인 가운데 권한대행인 부시장이 조직개편작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조직개편은 행정의 전문가의 몫이고 선출직 시장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조직의 전문성을 살려나가야 할 것이다"

포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정종근(사진) 의원은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2006년7월1일 임기가 시작된 이후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하 날카로운 지적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작업 또한 행정의 전문가인 부시장이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조직개편의 목표는 포천시의 중점정책을 이끌어갈 TF팀을 시장직속에 두는 것과 유사한 업무를 통폐합하는데 있으며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추진중인 현장위주의 정책과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시의원이 되기 전 사회단체장으로 활동했을 때는 시의원이 되면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막상 예산심의를 해보니 재정자립도가 약해 예산부족으로 더 많은 지원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 실시로 지역구가 넓어졌는데 축석고개부터 광덕고개까지 62km나 되는 지역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되는데 모두 참석할 수 없는 것이 큰 애로사항이다. 따라서 농촌지역이나 도농복합지역은 중선거구제보다 소선거구제를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선거구제의 장점은 지역의 전반적인 애로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으로 시를 대표해서 광의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안목이 커진다는 점이다.

정 의원은 현재 포천시에 현안사항으로 송우리택지개발지구 주차장 부지 4곳에 주차장 타워설치사업이 주택공사와 포천시가 정산작업이 2월에 완료돼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항공산업의 경우는 3월말에 현재 진행중인 김포시를 방문해 벤치마킹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항공사의 경우는 아시아나 항공도 저가항공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며 김포공항에서 송우리까지 1시간이면 도착하는데 포천에 지역항공사는 경쟁력이 없다고 지적한다.

정 의원은 포천신문이 5개 위원회와 사회각계각층을 망라한 작은 목소리, 큰 목소리를 대변해서 시민들의 입과 귀가 되어 포천시 발전에 중심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임시회, 정기회의, 시정질의, 예산 특위활동 등 포천시의회 의정활동 현장에서 입체적인 취재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기초질서 · 공권력 침해행위 강력 대처

포천경찰서 지역치안협의회 발족식 가져

포천경찰서(서장 김귀찬)는 2월29일 경찰서 2층 혁신회의실에서 서장, 각 과장, 법질서확립 T/F팀원과 부시장, 시의회 의장, 소방서장 및 통·리장협의회장, 기독교·불교연합회장, 기자실협회간사 등 유관기관·시민단체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질서 확립을 위한 지역치안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족식은 참석한 위원 소개 및 경찰서장 인사말, 그리고 법질서 확립 추진계획보고(PPT), 자유토론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추진계획보고는 공권력 약화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 증대 등 추진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추진을 위한 전략, 그리고 각 기관 사회단체별 중점추진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자유토론 시간에는 법질서 원년을 선포한 해로 주민 홍보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한 공감대 확산에 다같이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김귀찬 포천경찰서장은 인사말에서 "법질서 확립을 통해 사회적 손실비용을 줄여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통한 본격적 법질서 추진 그리고 정착, 확산해 나갈 것으로 유관단체 및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주민 홍보와 공감대 확산"에 협조를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경찰서는 2월29일 경찰서 2층 혁신회의실에서 서장, 각 과장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질서 확립을 위한 지역치안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법 질서 확립 위해 지역실무자 간담회

포천경찰서,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운동 협조 당부

포천경찰서(서장 김귀찬)는 3월4일 경찰서 2층 혁신회의실에서 각 지구대·파출소장 등 경찰관 13명, 포천시청 광고물 담당 등 4명 및 포천소방서 1명, 자율방범연합대장 등 협력단체 8명, 지역내 관광지 관리자 5명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질서 확립을 위한 지역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생활안전과장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시청 및 소방서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추진되는 '법질서 확립'과 관련 된 추진사항에 대한 소개 및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 운동에 대한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유관기관 담당자 및 지역 주민들은 법질서 확립에 관한 취지에 공감하며, 앞으로 생활주변의 사소한 기초질서부터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동참 할 것을 약속했다.

포천경찰서는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상설화해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경찰서는 3월4일 경찰서 2층 혁신회의실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질서 확립을 위한 지역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강림 의장, 향군 공로휘장 받아

안보의식 고취 및 지역공동체 함양 기여

이강림 포천시의회 의장이 안보의식 고취와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직)로부터 향군 공로휘장을 받았다.

이강림 의장은 3월6일 10시30분 수원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된2008년도 제47차 경기도재향군인회 정기총회에서 재향군인회 회원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세직 회장으로부터 공로휘장을 받았다. 이 의장은 포천시향군 21세기 율곡포럼 회장으로 추대되어 그동안 6.25 전쟁 바로 알리기 등 시민안보 의식 함양은 물론 포천시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향군회원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점이 높이 인정받아 공로휘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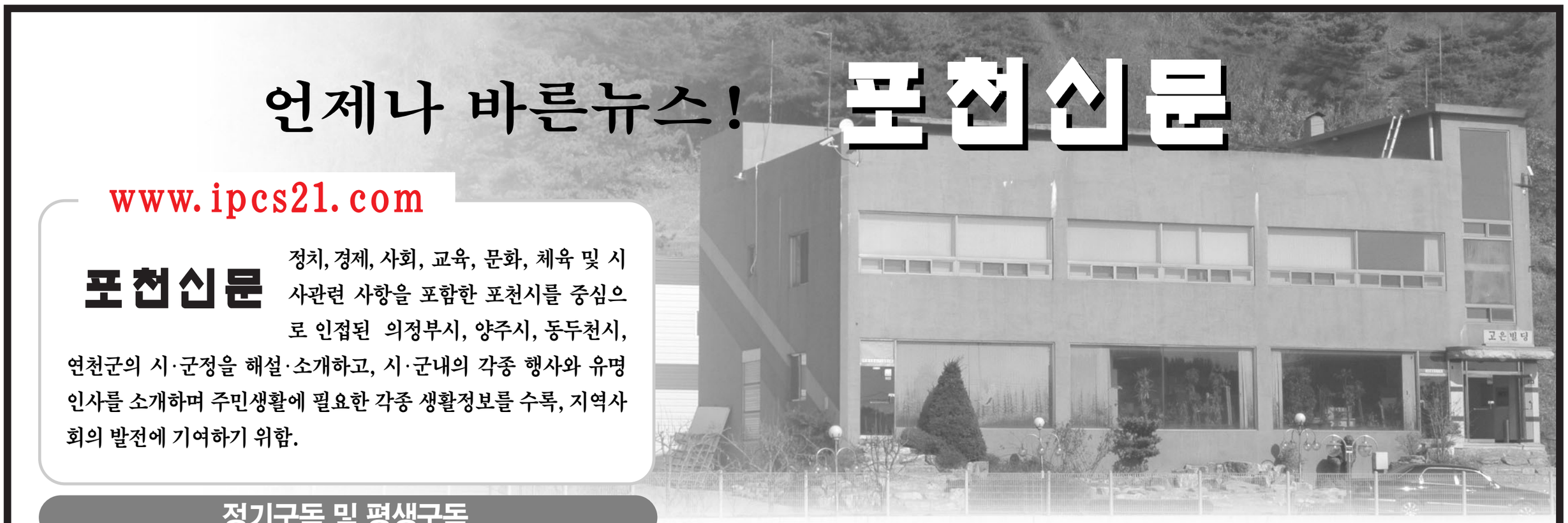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소방서 투척용소화기 안전교육

포천소방서(서장 이보형)는 7일 포천시 영북면 천사의 집에서 포천시 사회복지시설 협의회(회장 박상진)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척용소화기 비치 관련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개정된 소방법령에는 31일까지 노유자시설에 투척용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미비치시 과태료가 부과되여 법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투척용소화기는 누구나 쉽게 던져 불을 끄는 소화제로써 설치대상은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그밖의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등으로 포천시에는 500여개의 노유자시설이 있는 실정이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등록번호 경기 다 50007
2000. 8. 18 등록
포천신문 http://www.ipcs21.com
발행처:(주)포천신문사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 B/D 구독료 : 월 5,000원 / 년 50,000원 / 평생 500,000원
사 훈 : 주인정신(主人精神) 정론직필(正論直筆) 문화창달(文化暢達)
대표전화 (031)542-1507
편 집 국 (031)542-1506
광고접수 (031)542-9888
구독신청 (031)542-9889
F A X (031)541-9117
발 행 인 최 호 열
편 집 국 장 김 영 복
인 쇄 인 김 규 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주간신문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한다.